



iM뱅크는 지난 1월 21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가정 여아 빛나는 별 키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iM뱅크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봉사단이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iM뱅크는 지역 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17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기부 전달식 장면.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업그레이드 코리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대표이사 사장 한수희)이 9일 ‘2025 한국의경영대상’ 수상 기업 20개 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38회째인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격려하고,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기업의 경영역량과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성과지향적 경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바람직한 경영모델도 제시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 한국의경영대상’은 매니지먼트(Management), 프랙티스(Practice), 리포트(Report) 등 3개 영역으로 운영됐다.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AI(인공지능)혁신, 국민소통, 안전경영, 디지털혁신 등을 선정한 기업이 선정됐다. 프랙티스 영역의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로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이노베이티브 브랜드 오브 더 이어(Innovative Brand of the Year)’,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노베이티브 테크 오브 더 이어(Innovative Tech of the Year)’를 받았으며, LG유플러스와 제주항공은 ‘이노베이티브 챗봇 오브 더 이

(Brand), 기술(Tech), 서비스(Service), 챗봇(Chatbot) 등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했다. 리포트 영역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부문은 ESG심의위원회 검증으로 선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iM뱅크 ESG경영 부문 대상 받아

매니지먼트 영역의 ESG경영 부문은 iM뱅크(아이엠뱅크)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AI혁신 부문은 GS칼텍스·동원산업·부산대학교, 디지털혁신 부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안전경영 부문은 KT, 국민소통 부문에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프랙티스 영역의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로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이노베이티브 브랜드 오브 더 이어(Innovative Brand of the Year)’,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노베이티브 테크 오브 더 이어(Innovative Tech of the Year)’를 받았으며, LG유플러스와 제주항공은 ‘이노베이티브 챗봇 오브 더 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의경영대상’ 20개社 선정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전사적 DX 혁신 가속화하고 ESG 경영 강화에도 힘 써

어(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리포트 영역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부문에서는 SK증권이 ‘리포트 오브 더 이어(Report of the Year)’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 기반의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 경영 내재화 주목

GS칼텍스·동원산업·부산대학교·인천국제공항공사·KB국민은행·한국남동발전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며 전사적 AI·DX(디지털 전환) 혁신을 가속해 왔다. 단순한 시스템 교체 수준을 넘어 AI·DX를 조직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경영 전반의 체질을 혁신하는 데 집중했다.

iM뱅크·서울물재생시설공단·SK증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전력공사 등은 ESG를 기업가치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내재화했

다. 이들은 장기적 성장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ESG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

◇고객·이해관계자 중심 경영혁신에 집중

제주항공·LG유플러스·IBK기업은행·유한양행 등은 고객중심 서비스로 고객 경험 혁신을 가속화했다. 고객 여정 전체를 재설계하고, 디지털 상담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T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기반 경영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 중소기업 성장,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공공 가치 창출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안전경영을 독립적으로 체계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송광호 KMAC 가치혁신그룹장은 “수상 기업들은 AI·데이터 혁신과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산업의 변화 속도를 앞서가며, 고객 중심의 초개인화 서비스와 품질 혁신을 실현해 왔다”며 “이들이 만들어가는 도전과 성과가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적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미영 객원기자

2025 한국의경영대상					
부문	훈격	수상 기업	대표		
ESG경영	대상	iM뱅크	황병우		
	최우수상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AI혁신	대상	동원산업	김세훈		
		부산대학교	최재원		
		GS칼텍스	허세홍		
디지털혁신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국민소통	대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윤중		
안전경영	대상	KT	임현규		
Innovation Best Practice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Innovative Tech of the Year		한국남동발전	강기윤	
			LG유플러스	홍범식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제주항공	김이배	
	Innovative Product of the Year		CJ제일제당	윤석환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이환주	
				김성태	
				김성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허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Innovative Brand of the Year		유한양행	조옥제		
지속가능성보고서	Report of the Year	SK증권	정준호		
부문	수상자				
최고경영자상	iM뱅크 황병우 은행장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kma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홈페이지(www.kma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전담조직 구축… 금융 통한 환경문제 해결 나서

(환경·사회·지배구조)



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겸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며 ‘ESG경영’ 부문 대상에 이어 두 개 부문을 석권했다. 최고경영자상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혁신활동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은행장 취임 이후 ESG 전담조직 구축

iM뱅크는 2023년 황병우 은행장 취임 이후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이사회 소위원회로 설립하고, ESG 전담조직도 꾸려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ESG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ESG업무운용규정을 제정 및 개정해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ESG 경영·금융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내



황병우 iM뱅크은행장 겸 iM금융그룹 회장.

에 ESG 통합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성과의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해 시각화 프로그램 도입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했다.

iM뱅크는 지역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시니어 특화점포 ‘대봉브라보점’ 운영 △금융 사각지대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점포 운영 △디지털 소외계층의 iM뱅크 앱 이용 편의 제고 △보이스피싱 피

해 예방 강화 △지역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다방면의 ESG 활동으로 ESG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금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나서

iM뱅크는 저(低)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금융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최초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심사 시스템 도입 △ESG 성과평가(KPI) 운영 △폐전자·전기제품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디지털 명함 운영 △전기차 충전 제휴 이벤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방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아이엠뱅크 임직원뿐 아니라 함께해 준 모든 이해관계자들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속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문미영 객원기자

지역 산업·금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활동 꾸준히 전개



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겸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인정받았다.

iM뱅크는 2006년 지속가능경영 선포 이후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ESG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금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iM뱅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의 성과뿐 아니라 △ESG 업무운용규정 제·개정 △경영정보시스템 내 ESG 통합시스템 자체 구축 및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 고도화 △ESG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ESG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서도 모범적인 성과로



iM뱅크는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진행한 디지털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1967만원을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아나’에 전달했다. 사진은 황병우 iM뱅크은행장(오른쪽)과 ‘아나’ 관계자가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는 장면.

높은 평가를 받았다.

iM뱅크는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가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전반위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심사 시스템 도입 △ESG 성과평가(KPI) 운영 △폐전자·전기제품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을 실천하고, 사회 부문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자체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블라인드 공정채용 실시 △건강친화기업 등 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윤리실천 다짐의 날 운영 △서스틴베스트 2025 종합평가 AA등급 획득 등을 이뤄냈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iM뱅크가 지속 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에 두고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영 객원기자

자재 AI 플랫폼 ‘동원GPT’ 도입… 제품개발·리서치 비용 30% 절감



동원그룹 제공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사재 544억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동원산업(대표 김세훈)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AI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동원그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도입과 데이터 중심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 방식 변화까지 이끌어낸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동원그룹은 그룹의 경영 철학부터 생산·물류·유통·경영관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동원그룹은 ‘동원GPT’라는 그룹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누구나 그룹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GPT 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

디자인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AI가 전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신제품·패키지 디자인 생성과 평가, 트렌드 분석까지 한 번에 수행한다. 이를 통해 촬영

및 리서치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다. 물류 현장에서는 AI가 배송 차량과 경로를 최적화해 운송 효율과 납기 정확도가 높아졌다. 원양어선과 주요 물류 거점에는 AI CCTV를 설치해 추락·화재 등 사고를 실시간 감지·예방하고 있다. 현재 전국 59개 사업장과 선박에 총 1100여 대의 AI CCTV가 운영 중이다.

동원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선견지명이 있다. 김 명예회장은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해, AI 인재 양성과 기술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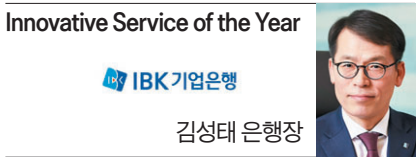
동원그룹은 AI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동원산업은 AI 인재 육성을 위해 한양대학교에 30억원을 기부했으며, 김 명예회장은 사재 544억원을 카이스트에 AI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2021년 ‘김재철 AI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신설해 다양한 AI 분야의 기술관리자 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객의 소리)

칭찬·불만 접수하는 VOC 넘어 ‘고객가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현장 중심 CS교육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맞춤형·사례 기반 교육으로 직원들이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IBK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이다.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경제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수상은 최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D) 우수 등급 획득, 혁신적 CS(고객만족) 교육체계 구축, 고객소리의 소리(VOC) 자산화 프로젝트 등 ‘고객가치 중심 경영’이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이 추진한 ‘VOC 자산화 프로젝트’다. 기존 VOC 시스템이 단순히 칭찬·불만을 접수·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IBK기업은행은 이를 데이터 기반의 고객가치 혁신 플랫폼으로 확

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VOC 불만·민원의 ‘경영 의사결정 데이터’화 △영업 현장 중심 문제 해결 구조 구축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직원의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현장 중심 CS 교육 강화 전략은 △영업점 실제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부서·직급별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영상 콘텐츠 확대 및 AI 기반 실시간 코칭 시스템 도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많은 직원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수상을 ‘성과’라기보다 ‘고객 중심 경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객의 소리를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CCTV로 위험 실시간 감지… 고소·밀폐공간 작업에 드론·로봇 활용



GS칼텍스(대표 허세홍)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AI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67년 설립된 GS칼텍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정유사로 반세기 넘게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에너지 선도 기업이다. GS칼텍스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DT·Deep Transformation)’의 핵심 축으로 디지털



& AI 트랜스포메이션(DAX·Digital & AI Transformation)을 설정하고 있다.

DAX는 디지털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AI 제안과 인간의 판단을 함께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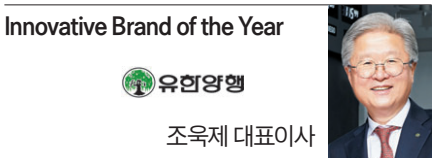
용하는 방식이다. 상호보완적으로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여준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 AI 기반 CCTV를 도입해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있다. 고소·밀

폐 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안전성과 점검 효율도 높이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 규정 챗봇 ‘안Gen봇’을 개발해 작업자들이 필요한 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AIU’를 지난 상반기 도입했다. DAX가 일부 전문가 영역을 넘어 전 직원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데미’까지 운영해 디지털 기술 및 생성형 AI 활용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 개발 집중… 신약 파이프라인 30개로 확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숙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브랜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회사다.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의 정신’ 아래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유한의 정신’에는 혁신 신약 개발과 신사업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이윤은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겠다는 기업 철학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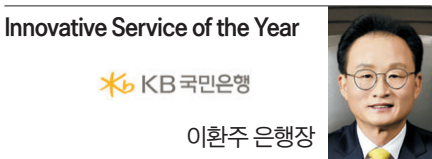
유한양행의 글로벌 진출은 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 보강제 ‘네오트론’ 등 오래된 품목에서 시작됐지만, 국산 31호 신약인 비소세포암 치료제 ‘렉라자’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렉라자는

지난해 8월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국산 항암제 최초 글로벌 1차 치료제로 등록했다. 올해 기준 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 혁신 신

약 가운데 국산 신약은 렉라자가 유일하다. 유한양행은 2015년 이후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집중하며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공동 연구, 자본 투자,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그 결과 올해 기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30여 개로 확대돼 2015년 9개에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유한양행의 주요 연구·개발(R&D) 분야는 항암, 심혈관, 대사, 면역 질환 등이다.

유한양행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K-제약바이오’ 성공 신화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AI 거버넌스’ 구축해 AI 서비스의 잠재 위험 사전에 식별·관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KB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 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왔다.



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 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돼 있다. AI가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

심 목표다. KB국민은행은 AI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내 최고이사결정기구인 ‘AI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고위험 서비스 승인,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

한 전략 결정 역할을 맡는다.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는 AI 서비스의 잠재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다. 위험등급은 허용불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네 단계로 분류되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강화된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허용불가’ 등급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금융시장 건전성 훼손 우려로 도입 자체가 금지된다.

KB국민은행은 임직원이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AI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AI 개발자에게는 별도의 개발 가이드 교육을 실시해 윤리 기준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탄소 전환·사회공헌·책임경영 ‘3축’으로 지속가능 금융 구현



SK증권(대표이사 전우중, 정준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에서 ‘리포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SK증권은 1955년 설립 이후 약 70년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투자회사다. SK증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앤드 비욘드(Sustainability and Beyond·지속 가능성과 그 이상)’라는 방향 아래 수립됐다. 이는 이해관계자 행복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지속가능 금융을 구



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SK증권은 이 전략을 환경(Planet)·사회(People)·지배구조(Principles)의 세 축으로 구체화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전환과 녹색·전환금융 확대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복지·사회공헌을 통한 신뢰 구축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윤리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경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러한 전략과 실행 성과를 집약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공시 기준인 GRI 스탠다드 2021(GRI Standards 2021)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재무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K-IFRS)을 따랐다.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컴팩트(UNG) 원칙과 책임은행원칙(PRB) 이행 현황을 연계해 공시하고, 산업별 중요 이슈 관리를 위해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투자은행 및 브로커리지 부문 기준도 참고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자연자본 의존도와 생물다양성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별도의 ‘생물다양성 보고서(Biodiversity Report)’를 발간하며, 기존의 기후 중심 공시에서 기후·자연자본 통합 공시로 확장했다. SK증권의 기후·금융 공시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을 받았으며, 중장기 감축 경로와 실행 계획도 명확히 제시했다.

정리=정진영 객원기자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환경 보호·지속가능 에너지 다 잡아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로 선정됐다.

한전은 지난 4월 정부 부처, 전라남도, 환경단체와 협업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발전소와 변전소 사이를 철탑으로 연결한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공사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 신안 앞바다에 3GW(기가와트·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3GW(기가와트·원전 3기 규모)급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 송전선로 경과지 중 일부(약 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

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에서 해저케이블 설치만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축구장 100개 규모(약 100ha)의 해저면을 굴착해야 해

스마트 출입국 서비스·자율주행 셔틀 도입… 디지털 공항으로 혁신

디지털혁신 부문 대상

Incheon Airport

이학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디지털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확장 공사를 마치고 연간 1억 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했다. 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여객 흐름 예측, 스마트 출입국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지능형 로봇 등 미래 공항 핵심 기술로 여객 편의와 공항 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래형 디지털 공항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부터 환승장과 탑승구에 확대 도입된 안면인식 출국수속 서비스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여행객 모습.

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2023년 제1여객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처음 운행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제1·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대했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는 실내 자율주행 모빌리티도 배치했다.

지난 7월 도입된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은 터미널 진입로와 공항 인근 도로의 혼잡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교통 흐름을 제시한다. 공항 내부에서는 IoT(사물인터넷) 센

서와 AI 기반 CCTV 영상 분석 기술로 여객 혼잡도를 예측해 적절한 인력 배치와 공간 분산도 유도하고 있다.

안면인식 출국수속 서비스 ‘스마트패스(Smart Pass)’는 출국장과 탑승구에 이어 지난 9월 환승장과 탑승구까지 전면 확대 도입됐다. 이 밖에도 다국어 기반 대화형 안내 로봇과 자율주행 셀프체크인 로봇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공항의 전 프로세스를 하나로 관리하는 통합시설관리시스템 ‘TAM(Total Airport Management)’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항의 정시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 TAM 중심으로 미래형 디지털 공항 전환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 예약 조회·실시간 운항 스케줄… 챗봇이 198개 언어로 24시간 응대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JEJUair

제주항공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챗봇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1월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저비용항공사(LCC)로 합리적인 항공여행 가격 정책을 통해 국내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선도해 왔다. 올해 기준 3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김포·인천·제주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 도시, 61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하이제코’는 198개 언어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하이제코(Hi Jeco)’를 도입했다. ‘하이제코’는 단순한 FAQ(자주 묻는 질문) 제공을 넘어 항공

여행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서비스(Self-Service)’가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항공운임·수하물·공항 절차 등 복잡한 규정과 다양한 예외 사항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표 형태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제주항공 고유 규정과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응답하도록 RAG(검색증강생성) 구조를 적용했다.

‘하이제코’는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총 198개 언어로 24시간 자동 응대하도록 구축돼 글로벌 고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지난달부터 △챗봇 내 예약 조회 △실시간 운항 스케줄 확인 △포인트·쿠폰 등 고객 보유 혜택 안내 △적용가능 할인코드 반영 등 실시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분야별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는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의에 더욱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챗봇 품질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 응답 넘어 상담·처리·가입 돕는 ‘실행형 AI’ 도입… 고객 만족도 높아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이사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챗봇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내 통신업계의 AI 도입을 선도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대규모언어모델(LLM·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 언어를 이해하도록 설계된 AI 모델) 기반 로밍 챗봇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 응답을 넘어 실제 상담·처리·가입까지



LG유플러스는 LLM 기반 로밍 챗봇을 적용, 고객 상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사진은 로밍 챗봇 시스템 설명회 모습.

수행하는 실행형 AI 상담을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새롭게 도입된 LLM 기반 로밍 챗봇은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맥락을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의도를 정교하게 파악해 단순 문의 대응부터 가입 절차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즉시 해결한다. LG유플러스는 로

밍 챗봇 도입으로 가입 절차를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60%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순고객추천지수(NPS)도 크게 개선됐다.

고객 사용성에 최적화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전면 개편도 눈길을 끌었다. 고객이 챗봇 이용 과정에서 복잡하지 않게 핵심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서남희 LG유플러스 CV담당 상무는 “이번 수상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술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고민의 결과”라며 “챗봇을 사람처럼 대화하고 소통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세’ 앱 이용건수 252만 돌파

전세 계약 필수 앱으로 자리잡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보호를 위해 선보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전세계약 필수앱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5’에 마련된 HUG 부스.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직무대행 윤명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며, 기업과 개인을 위한 각종 보증 등 정책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발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공식 출범했다.

HUG는 원활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분양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보증 △임대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출자·융자 △신생아특례대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주택도 공급하

고 있다.

HUG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시세는 물론 △임대인 세금 체납 이력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보증이행 관할센터 조회 △심사 진행 현황 안내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조회 주택과 유사 주택의 실거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예비 임대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HUG 전세보증 가입 건수, 대위변제 이력 등)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획기적인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안심전세’는 10월 말 기준 이용자 만족도 4.7점(5점 만점), 누적 다운로드 85만9429회, 이용 건수 252만4993건을 기록하며 전세 계약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AI 안전 플랫폼 ‘올인 세이프티’ 도입

위험 자동 분석… “중대재해 제로 실현”



KT 제공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통신 3사 기지국 안전시설물 공동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송창석 KT 안전보건실장, 김건우 LG유플러스 CSEO,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정창권 SKT 안전보건 담당(오른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전경영 부문 대상

kt

임현규 부사장

KT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의경영대상’ 안전경영 부문에서 통신업계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KT는 특히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강화 △AI 기반의 선제적 위험예방체계 구축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점을 높이

사다. KT는 안전보건총괄(CSHO)을 중심으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월례 안전강화협의회를 통해 그룹사·협력사·현장 실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 제도개선 의견,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사례 등을 논의한다. 제안된 의견은 모두 안전보

건총괄의 확인과 후속조치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 한 해 2000건이 넘는 개선 조치로 이어졌다. 통신·건설이 결합된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한 자체 개발 위험성 평가로 지난해 총 3만3000여 건, 최근 3년간 누적 11만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했다.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올인 세이프티(All-in Safety)’를 도입해 △작업 계획서에 대한 자동 위험성 분석 △고위험 작업 분류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 사진·영상 분석 △보호구 착용 여부 자동 검출 △통신주 구조안전성 진단 등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도 최근 3년 동안 8500개 이상의 철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10만 개가 넘는 노후 통신주와 맨홀 등을 보강했다. 또한 모든 통신구(통신사업 구역) 소방시설을 100% 구축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적인 위험 제거에 집중해 왔다.

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과 참여 중심의 소통문화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리=박효실 객원기자



한국의경영대상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혁신지향의 기업 문화 정착으로 산업계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에게 드리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경영의 등대, 시대를 이끄는 혁신의 빛이 되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선명한 비전으로 산업의 미래를 비추는 당신의 여정.
2025 한국의경영대상은 불확실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한 당신의 탁월한 경영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비춘 혁신의 빛이 대한민국 산업을 미래로 인도합니다.



최고경영자상



ESG경영 부문 대상



AI혁신 부문 대상



Innovative Brand of the Year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AI혁신 부문 대상



AI혁신 부문 대상



안전경영 부문 대상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